에스페란토125주년





UEA刊行「エスペラント125周年」への歓迎の言葉 国連少数民族問題独立専門家、イジャーク・リタ

125 JAHRE GERECHTE KOMMUNIKATION ZWISCHEN DEN VÖLKERN

Укрепить права говорящих на всех языках, это – дело, в которое язык эсперанто вносит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125 AÑOS DE COMUNICACIÓN EQUITATIVA ENTRE LOS PUEBLOS

125 ANS DE COMMUNICATION ÉQUITABLE ENTRE LES PEU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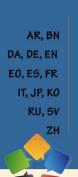
125 YEARS OF EQUITABLE COMMUNICATION AMONG THE PEOPLES OF THE WORLD



Rita Izsák UN Independent Expert



DR. TOVE SKUTNABB-KANGAS







GERHARD WALTER



Dr. Fernand de Varennes

© Universala Esperanto-Asocio (UEA)

http://www.linguistic-rights.org/esperanto-125/



"에스페란토 125주년"을 축하하며 IZSÁK Rita, 소수자 문제에 관한 유엔 독립전문조사위원

"다양성 속의 통일". 이 슬로건은 내가 소수자 문제에 관한 유엔의 독립 전문조사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공동체가 안고 있는 소수자의 권리를 논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법이자 목표입니다. 에스페란토가 정확히 추구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에스페란토는 서로의 문화적 •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종족 • 국가 • 종교 •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고, 관점을 나누기 위한 공통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창안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전세계적으로 600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언어의 대부분은 소수자의 언어로 간주되고 상당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은 '국가 또는 민족 • 종교 • 언어적 소수자의 권리 선언'을 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은, 소수자 언어를 보호하는데 있어 아직도 앞에 놓인 도전과 그 동안의 진척사항을 평가해 볼 적절한 시간입니다. 에스페란토 125주년에 즈음하여, 나는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와 협회가 이룬 업적을 축하하며, 사람들 상호간의 이해, 의사소통의 평등, 문화 • 언어적 다양성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는 스위스의회 의원들이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를 2008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던 중요한 성과들입니다.

내가 일하는 중에 나는 언어 소수자 권리가 나의 최우선적인 분야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수자 언어는 그들의 개별적 정체성과 집단정체성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소수자 언어를 말하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들 언어를 지키고 계속 사용하려는 모든 지역의 소수자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언어 소수자는 대부분 국가 • 민족 • 종교적 소수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국적과 민족성, 종교 분야에서 받는 차별 때문에 그들이 직면한 문제가 더 악화될지도 모릅니다.

식민주의와 같은 역사적 요인들은 언어에 커다란 충격을 가해서, 토착어와 소수자 언어를 소외시키고 그 언어의 사용이 급속히 감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메리카에 식민지 언어가 도입되자 국가어와 소수자 언어가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과 행정분야, 정치생활, 의사소통에서 식민지 언어가 장려되었습니다. 소수자 언어와 토착어는 퇴보이자, 식민 패권에 대한 장벽, 혹은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의 세계화가 이와 똑같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장과 세계와의 소통을 위한 이해가 요구됨에 따라 소수자 언어와 언어 다양성에 직접적이고 해로운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천의 소수자 언어를 잘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에스페란토 창안자의 선견지명을 상기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우정, 평화, 이해, 협력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상호의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에스페란토가 다양성을 촉진하면서도 통일성을 창조하는 이중역할을 계속 수행하길 바랍니다.

- - -



Dr. Tove Skutnabb-Kangas, Dr.phil. University of Roskilde, Denmark; retired; associate professor, Åbo Akademi University Vasa, Finland.

많은 언어학자와 다른 사람들이 에스페란토에 대해 실제로는 거의 알지 못하면서 현재의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대안으로써의 에스페란토를 거부하여 항상 나를 놀라게 했다. 고안된 모든 언어들 중에서 에스페란토가 오늘날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된다. 나는 사람들이 에스페란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 따를

많은 이익을 알고 있다.

첫째, 에스페란토는 규칙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자연어'보다 배우는 시간이 덜 필요하다. 하지만 각자가 새로운 단어를 쉽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에스페란토로 말할 수 있다. 에스페란토 어원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새 단어들을 즉시 이해할 수 있으며, 에스페란토 단어들은 뜻이 명료하다. 이밖에도 에스페란토로 쓰인 많은 문학작품들이 있다.

둘째, 나중에 다른 언어를 배우기 위해 에스페란토 학습이 지닌 예비지식적 가치를 살핀 연구결과가 있다. 만약 에스페란토를 먼저 학습하고 나면, 언어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

셋째, 에스페란토는 복수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나 단체에게 완벽한 공통언어가 될 것이다; 제대로 배우는데 길고 긴 세월이 필요한 영어학습을 시작하는 대신, 영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기까지 필요한 시간의 극히 일부분만으로도 에스페란토를 빨리 배워서 다른 사람들과 에스페란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토착민들을 위해, 많은 다중언어국가들을 위해, 에스페란토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영어를 추가적으로 배우는 데 방해할 어떤 것도 없으나, 영어(혹은 스페인어 혹은 중국어 혹은 그 밖의 다른 언어)를 배우며 몇 년을 기다리기는 대신, 에스페란토로 거의 즉시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

넷째, 어떤 거대한 지배적인 언어와는 반대로, 에스페란토는 제국적 경향을 지니지 않으며 지닐 수도 없다. 기본적으로 에스페란토는 어느 누구의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결부되어 있지 않다.

나는 에스페란토가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현재의 언어들에 대한 대안으로 성공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무시와 편견은 유용한 해법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Professor emeritus
Dr. Robert Phillipson
Copenhagen Business School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cation

자멘호프는 민족주의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비인도적 행위에 충격을 받아서, 언어운동과 연동시킬 평화운동을 생각해냈다.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회정의에 대한 필요가 절실한 현대사회에서 에스페란토는 하나의 현실이다.

에스페란토가 근본적으로 기여하는 일은 모든 언어 사용자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의사결정자들은 이 점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



Gerhard Walter Borgmästare Stadt Herzberg am Harz – Esperantostaden

유럽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이 나처럼 그 인공어에 대해 이미 들은 바 있다. 나는 내가 시장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에스페란토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많은 독자들이 독일에서 에스페란토 교사들을 위한 교육 센터가 우리 도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불가피하게 에스페란토를 배워야 했다. 난 학교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배웠기 때문에, 에스페란토를 배우지 않고도 몇 개의 에스페란토 단어들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 나는 에스페란토를 많은 부분 이해하며, 어느 정도까지에스페란토로 말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 다른 언어보다 훨씬 빨리 에스페란토를 배울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난 확증해 줄 수 있다. 예로, 기본 규칙이 단순하다. 명사는 -o, 형용사는 -a, 과거는 -is, 미래는 -os로 끝난다.

나는 한 달에 몇 시간 에스페란토를 배우기 위해 드는 시간이 아깝지 않으며 (예로, 점심시간에 에스페란토 선생님과 후식을 즐기면서 배운다),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나도 에스페란토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실질적인 두 번째 언어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속한다. 이는 당국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결정권자 스스로도 에스페란토와 관련된 적지 않은 행사에 나타나라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에스페란토 행사에 참석하는 유일한 시장이다. 이로 인해 언어의 보석인 에스페란토가 더 오랜 기다림 속에 머물러야 하는 유감스런 상황이 앞으로 여러 해 지속될 것이다.

나는 과거 전 대륙에서 에스페란토로 많은 초청을 받았다. 아마도 앞으로 언젠가는 이 많은 초청에 응답할 은퇴자로서 에스페란토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 - -



Dr Fernand de Varennes International Observatory on Language Rights Faculty of Law, Université de Moncton, Canada

"지금 세계는 단 하나 혹은 두 개 언어가 독점적 영향력을 점점 더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제 다양성을 지닌 국가들이 중립언어가 이에 맞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방어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다. 나는 에스페란토가 빨리 더 많은 진전을 보여서 세계 모든 국가들을 도왔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바람을 가지고 있다."

-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 아이슬란드 전 대통령

경종은 울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위기는 존재한다 : 오늘날 사용되는 세계의 언어들 중절반이상이 앞으로 100년 안에 사라지는 것은 결코 마땅하지 않을 뿐더러, 비교적 많은 특권을 가진 소수가 언어를 통해서 세계 곳곳의 많은 "타자 " 위에 군림하는 것도 정상이아니다.

모든 인류가 지닌 언어 유산의 대대적인 소멸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다양성 속의 통일체》를 보존하기 위해 제안된 여러 방법 중 하나가125년 전에 창안된 에스페란토와 같은 중립적인 보조언어의 사용이다.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 모른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가? 절대로 그건 아니다.

"악에 대한 비협력은 선에 대한 협력과 똑같은 인간의 의무다"라는 간디의 말은 모든 정부의 정책에, 그리고 유엔이나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들에게 진리가 되어야만 한다. 지금처한 현상에 직면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몇 안 되는 세계거대언어들, 때로는 발전과 문명의 유일한 언어들로 비쳐지는 그것들 중의 하나를 완벽하게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으로부터 배제되고, 손실을 입고, 처벌 받도록 그냥 놔둬야하는 것은 잘못이다. 죄악일 수도 있다.

창안된 지 125년 된 에스페란토와 같은 언어는19세기보다 21세기에 더 절실히 필요하다 :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신화와는 정 반대로, 중립적이지도 않고 편파성이 없이는 세상 모든 나라를 한데 묶을 수도 없는, 소수의 배타적인 언어를 채택함으로써 대부분의 인류가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Stefano Keller

UEA Executive Board/External relations.
Chief Representative of the Universal Esperanto Association at the United Nations in Geneva. President of the organization

"Esperanto for the United Nations" (EUN)



한국어 - 최은숙

© Stefano Keller Universala Esperanto-Asocio, <u>UEA</u>, 2013